

일본어교육 지원사업

교사 연수

중등 일본어교사 집중 연수

2020년 1월 13일 ~ 17일 예정

부산시교육청 인가 직무연수

2019년 시기는 미정

교사회 세미나 / 직무 연수

- 각지 일본어교육연구회 출강
- 워크숍 직무 연수 출강
- 연수 기획 협력

정기 스터디 모임

- 10명 정도 규모의 정기 스터디 모임에 출강

학교 방문

일본 문화 소개 및 체험

일본인 서포터와의 회화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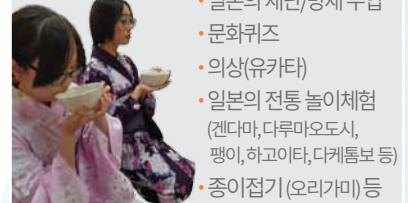


- 선생님과 페어가 되어 수업을 실시(팀티칭)
- ※ 팀티칭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주세요.

주의사항

- 서포터의 출강은 수도권 지역에 한정
- 한 학교에 대해 한학기에 1회 방문합니다.
- 사전에 수업 내용 및 진행방식을 제시해 주세요.
- 동아리·방과 후 활동·일본어캠프 모임은 센터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체험 수업 내용



- 회화수업
- 일본의 재난/방재 수업
- 문화퀴즈
- 의상(유카타)
- 일본의 전통 놀이체험 (겐다마, 다루마오도시, 팽이, 하코이타, 다케토보 등)
- 종이접기(오리가미) 등

기타

센터 방문

- 과외 활동, 교외 학습 등의 협력
- 일본 문화 소개, 문화 체험
 - ① 다도 ② 서도(서예) ③ 유카타 ④ 전통놀이 (겐다마, 다루마오도시, 팽이, 하코이타, 다케토보 등)
 - ⑤ 축제놀이(요요, 금붕어 건지기) ⑥ 종이접기
 - ⑦ 재난/방재/일본지도 놀이 수업
- 일본어 수업/일본 영화 감상 등

• 수요일, 금요일만 가능

※ 단 세미나실 스케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유카타 / 핫피 / 겐다마 대여

- 여성용 (유카타/허리끈/오비/게타)
- 남성용 (유카타/허리끈/오비/게타)
- 겐다마 (일본겐다마협회공인)

주의사항

- 대여기간은 1주일입니다.
- 사용 후 클리닝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 대여문의: 02-397-2820 (사업관리부)

일본어 교사 살롱

서울 3~6월, 9~12월 / 첫째 주 토요일
(2시 반부터~4시 반까지)
- 5월은 둘째주 토요일 개최

부산 3~6월, 9~12월 / 월 1회
(2시 반부터~4시 반까지)
- 문의: 051-465-8472



이벤트

콘테스트 심사 / 문화제 / 일본어 캠프

학교, 지역 주최의 일본어 관련 이벤트에 협력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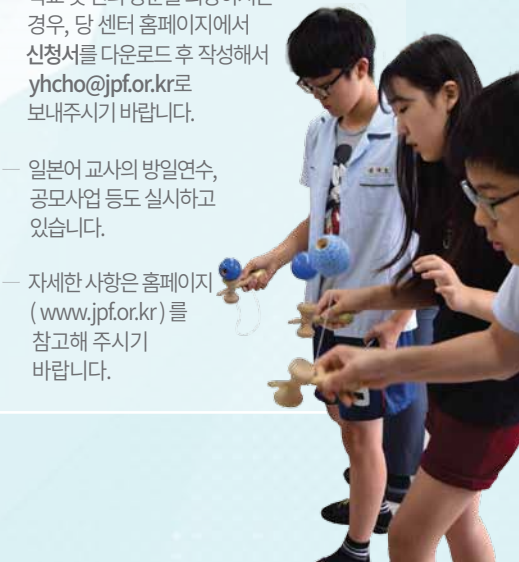
서울 02-397-2820

부산 051-465-8472

- 학교 및 센터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당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해서 yhcho@jpf.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어 교사의 방일연수, 공모사업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jpf.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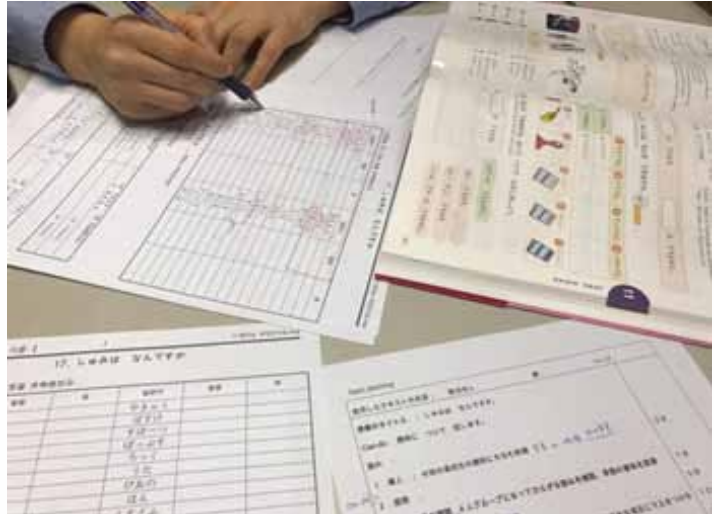


팀티칭(Team-Teaching)

팀티칭이란 2명 이상의 교사가 팀을 구성하여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한 교실에서 함께 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업의 계획, 실시, 수업 후의 평가를 함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한국인 교사와 일본인 교사가 협력과 분담을 통하여 각각의 장점,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면 학생들에게 성취감과 커다란 동기 부여가 되어 언어활동의 목표를 한층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팀티칭의 장점

- 학생이 원어민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 학생이 원어민의 음성과 동작 등을 직접 접할 수 있다.
- 학생이 일본과 일본어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 학생이 일본어로 한국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
- 두 명의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 할 수 있다.



일본어교사 체험 레포트(2017년 11월 20일)

이번 팀티칭 수업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달리 일순간에 교실 분위기가 변했다. 원어민 선생님의 등장만으로 일본어 학습을 향한 동기가 교실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났다. 3월 이후 흥미를 보이지 않았던 남학생들이 눈을 뜨고 수업에 참가하는 기적 같은 순간이란. 학습지에 공란을 메우고 짝꿍 여학생에게 묻고 배우는 훌륭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예상은 했지만 내 안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다. 1년간 주 3시간씩 일본어를 연습할 기회가 있었지만 교실에서만 가능할 뿐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실제로 확인해 볼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

수업을 구성할 때 수업목표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수업의 주도권을 어느 교사에게 둘 것인가 원어민 교사와의 역할 분담도 고려의 대상이었다. 원어민 교사의 조언을 받고 학습항목을 수정하거나 학습지를 바꾸고, 그림카드를 활용한 수업활동을 도입하여 1시간 수업을 완성했다. 그렇지만 이번 팀티칭 수업은 평소와 다른 이벤트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업 성공의 열쇠는 뭐니 뭐니 해도 원어민 교사의 존재 그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ARCS 모델 측면에서 보아도 원어민 교사가 교실에 등장함과 동시에 아이들은 수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인다. (A: Attention) 오늘 배울 학습항목이 원어민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실감한다. (R: Relevance) 모르는 것을 원어민 교사에게 질문하면서 자기소개문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획득한다. (C: Confidence) 중국에는 수업시간에 배워보길 잘했다는 만족감을 느낀다. (S: Satisfaction) 그렇다고 해서 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매번 원어민 교사의 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기적인 특별수업이 불가능하다면 이에 상응하는 수업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수업을 통해 획득한 필터를 수업시간 안에 사용하고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실제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 학습자의 학습 동기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가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학습동기 지속은 평소 수업을 통해 만족감과 성취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학습자가 학습의욕과 동기를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면 학습자는 결국 외국어를 배우는 기쁨을 느끼고 외국어를 통한 이문화이해와 동시에 자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학습동기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한 팀티칭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림중학교 지윤미 교사)